

경상북도의회 제300회 임시회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

결 과 보 고 서

본 자료는「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6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경 상 북 도 의 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목 차

I. 개 요	2
1. 특별위원회 구성	2
2. 활동목적	3
3. 활동기간	3
4. 활동내용	3
II. 주요 활동실적	4
1. 총괄	4
2. 활동 상황일지	4
3. 주요 활동내용	5
4. 주요성과 및 제언	7
III. 참고자료	9
1. 주요 활동 사진	10
2. 언론 보도 사항	12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I. 개요

1. 특별위원회 구성

○ 구성취지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지방분권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를 구성함.

○ 구성경위

-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9.1.) 구성 결의안 의결
-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6.9.1.) 위원 선임(9인)

○ 구성현황 : 9인

직 위	의 원 명	지 역 구	비 고
위 원 장	이상구	포항	
부위원장	이홍희	구미	
위 원	김지식	비례	
〃	김창규	칠곡	
〃	배영애	비례	
〃	오세혁	경산	
〃	이영식	안동	
〃	이운식	상주	
〃	최태림	의성	

○ 활동지원 : 기획전문위원실

- 수석전문위원 : 백승걸
- 전 문 위 원 : 전병기
- 직 원 : 우대범, 유영훈, 이은정

2. 활동목적

-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이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한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의 시대를 열어 가야할 때임.
-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7주년을 맞았으나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인 자치와 분권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갈수록 경제, 정치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고,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과 세제개편을 통한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 및 자치입법권 확대는 아직도 요원한 실정임.
- 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뜻을 모아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활동기간 : 2016.9.1. ~ 2018.6.30.

4. 활동내용

-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경북도 기획조정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요구서 건의(주요 5개정당 중앙당사)
- 지방분권토론회 개최(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II. 주요 활동 실적

1. 총 괄

- 회의 개최 : 4회
- 현장방문 : 1회
- 요구서 제출 : 1회
- 토론회 : 1회

2. 활동 상황일지

- 위원회 회의 개최

구분	일시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제1차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9명	· 위원장 선출 · 부위원장 선출
제2차	2016. 10. 5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8명	· 업무보고(경북도 기획조정실)
제3차	2017. 2. 6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7명	· 업무보고(경북도 기획조정실)
제4차	2018. 2. 9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5명	· 업무보고(경북도 기획조정실)

- 지방분권 업무협약

장소	일시	참석인원	내 용
부산시의회	2017. 2. 21	6명	지방분권 업무협약 체결 등

- 지방분권과제 채택요구서 제출

일시	발 송 처	내 용
2017. 4. 21	5개정당 중앙당사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 토론회 개최

장소	일시	참석인원	내 용
경북도의회 세미나실	2017. 9. 13	4명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3. 주요 활동내용

□ 제1차 회의(제287회 임시회 기간중)

- 일시 및 장소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
- 의사일정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의석 배정
- 선출결과 : 위원장(이상구), 부위원장(이홍희)

□ 제2차 회의(제288회 임시회 기간중)

- 일시 및 장소 : 2016. 10. 5./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8명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 제3차 회의(제290회 임시회 기간중)

- 일시 및 장소 : 2017. 2. 6./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 지방분권 업무협약(MOU) 체결

- 일 시 : 2017. 2. 21(화) 17:00 ~ 17:30
- 장 소 :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1층)
- 주최·주관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협약서명자 : 경상북도의회 이상구 위원장, 부산시의회 공한수 위원장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 정부, 정치권 건의 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
 - 19대 대선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 촉구활동에 적극 동참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이 될 때까지 상호 협력 지속

□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 제출계획

○ 일 자 : 2017. 4. 21

○ 발 송 처 : 주요 5개정당 중앙당사

○ 발 송 자 : 경상북도의회·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

○ 발송방법 : 등기우편 발송

○ 주요내용

-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시
- 법률에 위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 보장
-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 및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 보장
- 지자체의 조직 구성 방법과 운영방안을 정하는 자치조직권 보장
-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제도화를 통한 지자체의 참여 보장
- 지역의 대표성과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권력구조 변경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지방의원의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 일 시 : 2017. 9. 13(수) 11:00 ~ 15:00

○ 장 소 : 경상북도의회 세미나실

○ 주요내용

- 지방분권운동 확산 및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요구
- 지역균형발전 요구 등

□ 제4차 회의(제297회 임시회 기간중)

○ 일시 및 장소 : 2018. 2. 9./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 참석위원 : 5명

○ 주요내용 : 지방분권 관련 업무보고

4. 주요성과 및 제언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10대 후반기에 구성된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분권형 개헌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 네 번의 집행부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경쟁력 강화가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하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의 저변확대를 위해 이·통장 교육확대, 도·시군 사무이양과제 발굴, 분권형 개헌 촉구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또한 지난해 2월에는 부산시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방분권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19대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각 정당 중앙당사로 발송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였다.
-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하여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 운동 확산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였다.
- 그간 활동을 통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 대선을 통한 지방분권 공론화 및 공약 반영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분권 과제가 지방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되고 있으며,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인구,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비대해지고 있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와 연대 및 협력하여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한 다양한 지방분권 과제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인식전환과 중앙 정치권의 헌법개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1.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서 대구를 포함한 타 시·도 의회와 간담회를 추진 할 것
 2. 지방분권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이·통장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와 시군의 사무이양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
 3.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
 4. 시군의 지방분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설립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5. 제19대 대선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으로 촉구할 것
 6. 지방분권이 경북도를 포함해서 수도권 지역의 공감대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할 것

Ⅲ. 참 고 자 료

1. 주요 활동 사진
2. 언론 보도 사항

1. 주요활동사진

□ 제2차 회의(업무보고, 2016.10.25.)



□ 지방분권 업무협약(MOU) 체결 (2017.2.21.)



2. 언론보도사항

대경일보

2016년 10월 07일 금요일 002면 정치

“말로만 지방분권 하나라도 실천해야”



이상구(포항) 특별위원장



최태림(의성) 의원



이운식(상주) 의원



이흥희(구미) 의원



이영식(안동) 의원

극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흥희(구미) 의원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지방분권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중앙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부족해 서라고 진단하며, 우리 경북도에서 먼저 지방분권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 집행부 업무보고 받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는 5일 제2차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열어 도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방분권 추진과 관련해 주요업무를 보고 받았다.

▲이상구(포항)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추진은 미미하다고 진단하며, 이제라도 말로만 하는 지방분권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지금까지 지방분권 추진은 토론,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이제라도 17개 시·도가 한 목소리를 내 정치권에 강하게 요구하고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이운식(상주) 의원은 “지난 6월 21일 출범한 중부권 정책협의회에서 공동 합의한 동서5축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7개 광역 시·도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며, 백제문화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은 우리 도에서 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이·통상 교육 예산 확보, 도에서 시·군으로 적극적인 사무이양,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 등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는 지방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식(안동) 의원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내년 연말 대선과 제20대 국회 지방분권 총선 공약 4대분야 14개 과제를 잘 검토해서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울러 다음 회의부터는 지방분권추진과 관련한 작은 사례라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도청본사/안상수 기자

ass1920@naver.com

경상매일

2016년 09월 02일 금요일 003면 종합

경북도의회, 하반기 특별위원회 구성

대구공항이전특위 등 6개

경북도의회는 1일 하반기 예산결산 및 도정연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 6개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대구공항이전특별위원회 등 6개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홍진규(군위), 윤리특위 위원장 박문하(포항), 지방분권추진특위 위원장 이상구(포항), 원자력안전특위 위원장 장용준(울진), 독도수호특위 위원장 남진복(울릉), 대구공항이전특위 위원장 김수문(의성)을 각각 선출했다.

먼저 예산결산특위는 홍진규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박용선(비례) 위원에는 김수문(의성), 김



김수문

남진복

박문하

이상구

장용준

홍진규

지식(구미), 남진복(울릉), 박권현(경도), 박성만(영주), 박정현(고령), 박현국(봉화), 배영애(비례), 윤성규(경산), 이운식(상주), 장대진(안동), 정영길(성주)이 각각 참여한다.

위원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도청과 도교육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추경예산안, 2016년도 정리추경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윤리특위는 박문하(포항)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 안희영(예

천, 위원에는 광경호(철곡), 김정숙(비례), 남천희(영양), 윤창욱(구미), 정상구(경도), 조현일(경산), 황병직(영주)의원이 활동하게 된다.

위원의 임기는 2018년 6월 30일까지 경북도의회 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된다.

경북도의회는 이와 함께 일문의 독도에 대한 헛된 아욕을 단호하고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도민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하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은 남진복(울릉) 위원장과 김종영(포항)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수용(영천), 김인중(비례), 김희수(포항), 박영서(문경), 박정현(고령), 박현국(봉화), 장경식(포항)이 참여하고 있다.

또 지방분권추진특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구성했다.

이상구(포항)위원장과 이흥희(구미)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지식(구미), 김창규(철곡), 배영애(비례), 오세혁(경산), 이영식(안동),

이운식(상주), 최태림(의성)이 참여한다.

원자력안전특위는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원자력발전소 운영상 안전관리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하기 위해 구성했다.

위원장 장용준(울진)과 부위원장 황재철(영덕)을 비롯해 김유한(비례) 배진석(경주), 이동호(경주), 이진락(경주), 장두욱(포항), 장영석(구미), 최병준(경주)이 참여해 활동한다.

대구공항이전특위는 2018년 6월 30일까지 대구공항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을 위해 구성했다.

위원장인 김수문(의성)의원과 부위원장이 이수경(성주)의원을 비롯해 박용선(비례), 윤성규(경산), 윤종도(영송), 이태식(구미), 조주홍(비례), 한해린(영천), 홍진규(군위)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노재현 기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위한 업무협약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전선 구축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사진)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중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권력체계로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고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미약해 양시·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됐다.

업무협약식에 경북도의회 장두욱 부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이 축사 하고, 양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슬로건으로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며, 양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며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어 조속히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서는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 반영하도록 범지방적 촉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담고 있다.

신영길기자

경북도의회,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상호협력하기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21일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지방자치의 시작이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권력체제로 지방 자율성과 창의성을 옥죄고 있고 지역주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미약해 양 시·도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따른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됐다.

업무 협약식에는 장두욱 부의장과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양 시·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방분권은 대한민국 미래다!'라는 슬로건아래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장두욱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자"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어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21일 서명할 업무협약서에는 '양 시·도 의회가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 개발과 대정부 및 정치권 건의 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 및 연대해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에 조속히 반영하도록 범지방적 촉구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 추진 힘 모으자" 부산시의회-경북도의회 MOU 체결

협약식에는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과 경상북도의회 장두욱 부의장,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공 위원장,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이 위원장 등 2개 시·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는 21일 오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방분권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부산시와 경북도 의회는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한 정책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대정부·정치권 건의활동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또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광역적 지방분권 활동을 공동 추진하기로 한다.

공한수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역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동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경북의회 '지방분권 실현' 정책개발 손잡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장두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공한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두 의회는 협약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정책을 공동 개발하고 대정부·정치권 건의활동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19대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 분권형 개헌과 자치 입법권 강화 등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공한수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라 할 수 있다"면서 "두 광역의회 차원의 지방분권 운동이 전국 단위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공동 각 대선 후보자에 요구서 전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부산시의회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대선후보자들에게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지난 21일 건의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해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



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요구서는 주요 정당 중앙당사로 서면 발송했다.

이상구<사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기자 kws@hidomin.com

“지방분권 과제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 자치가 시작된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하여,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도의회는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했다.

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야”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 요구서 건의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가 지난 21일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건의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

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해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건의서를 통해 차기 개헌 시 국가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한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요구한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요구서는 주요 정당 중앙당사로 서면

으로 발송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이다”고 지적하고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인교 기자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하라’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대선후보에 ‘요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사진)는 지난 21일 주요 지방분권 과제가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공동으로 주요 대선 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건의했다.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에는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19대 대



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 요구내용은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써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에 요구한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요구서는 주요 정당 중앙당사로 서면

으로 발송했다.

이상구 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하고,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하여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경북도-부산시의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주요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요구서를 공동 발송했다.

이들 광역의회의 요구는 지방의회 부활 및 지방자치시대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하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19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주요 지방분권과제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도록 촉



구하기 위해서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한국당·포항·사진)은 “각 대선 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경북도 · 부산시의회,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요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공동으로 21일 주요 대선후보자들에게 지방분권 과제 대선공약 채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서 발송은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지방분권이 미약한 실정으로, 대선후보자들에게 차기 정권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 · 부산시의회는 요구서에서 차기 개헌시 국가근본이념으로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의회가 세목·세율과 징수방법을 규정하는 자치재정권과 조직의 구성 방법 및 운영방안을 지자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자치 조직권을 촉구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지방분권 실현의 골든타임이며,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며 “대선후보자들이 지방분권 과제를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차기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시해 지방으로 대폭적인 권한과 자원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론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이뤄질 헌법 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제공>

대구일보



경북도-부산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 한자리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오후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실시했다.

경북매일

2017년 09월 14일 목요일
002면 종합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토론회는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 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자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다짐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며 “새정부가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내년엔 꼭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이루자”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위 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답방형 식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도의회 고우현 부의장과 부산시의회 백종현 의장의 축사, 마지막으로 최근열 경일대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고우현 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양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서로 협력하자”고 강조했다.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자원체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착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결의했다.

이상구 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경북도의회, 부산광역시의회와 지방분권 토론회

**지방분권 추진과제·방향 논의
“일치단결로 중앙정치권 압박
기필코 헌법개정 이뤄내야”**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실시했다.

토론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답방형식으로 이뤄졌으며 내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재해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경북도의회 고우현 부의장과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의 축사, 최근열 경일대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지방분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해 서로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한 최근열 경일대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

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우삼기자 kws@hidomin.com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위해 머리 맞대자”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
지역균형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답방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날 지방분권 토론회는 이상구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시

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고우현 부의장과 부산시의회 백종헌 의장의 축사, 마지막으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위원장은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손주락 기자 thswnfkr2004@daum.net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분권 토론회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운동 확산 목표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2월 21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답방형식으로 이뤄졌으며, 특히 내년도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키 위해 개최됐다.

이날 지방분권 토론회는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광역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경북도의회 고우현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백종현 의장 축사,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 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분권이 선결과제며, 양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 상호 협력하

자"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 추진한 지방분권 노력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 사무배분 및 재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이다"라고 지적했다.

특위위원들은 경상북도의회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상호 중앙정권을 강하게 압박해 내년도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어 서울과 수도권은 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하고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신영길기자

참 지방풀뿌리 실현 '분권 선결해야'

경북도의회-부산시의회 공동 지방분권 토론회 개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구)는 13일 오후 1시 30분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공한수)와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1일 부산시의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답방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내년도에 이뤄질 헌법개정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의 지혜를 모으고 지방분권운동을 확산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이날 지방분권 토론회는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공한수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의 인사말, 경북도의회 고우현 부의장과 부산시의회 백종현 의장의 축사에 이어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의 '새 정부 지방분권의 추진과제 및 방향' 주제발표와 특위원들간 상호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결과제이며, 양 시·도의회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전선을 구축하여 서로 협력하자"라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한 최근열 경일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각 정부별로 추진한 지방분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중앙위주의 사무배분 및 재



원체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관계 모호, 조례제정권의 한계 등으로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위원들은 경북도의회와 부산시의회가 서로 일치단결해서 중앙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해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이루자고 말했다.

이상구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력집중은 지방의 자주 재정권과 입법권, 자

주 조직권 등이 없는 반쪽짜리 지방자치를 만들고 있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더욱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자원분배의 왜곡으로 거의 아사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도에 헌법개정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공언한 이 시점은, 지방분권 개헌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